

패션모델과 여대생들의 신체 만족도 비교 연구

송 정 아

상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The Body Cathexis Difference Between Fashion Model and College Women

Jung-A Song

Dept. of Clothing Design, Sangju University, Sangju, Korea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f there were any differences between fashion model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body cathexis an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their body form and satisfaction of clothing fit according to height, weight and body type. For this study 378 people, including 113 fashion models and 265 female college students were analyzed. Means, t-test and χ^2 -test were used in data analys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fashion model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body cathexis. For instance fashion models were more positive about their bodies especially concerning height. Fashion Model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differed significantly in perception of their body form according to weight and body type. Perhaps they have another criteria. Fashion Model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differed significantly in satisfaction of clothing fit according to weight and body type. The taller and Thinner, The higher satisfaction of Clothing fit.

Key words : body cathexis, satisfaction of clothing fit, body perception

1. 서 론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외모는 개인의 판단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인 신체적인 특징과 의복은 의복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신체적인 만족도는 심리적인 요소와 마스크 같은 외적 조건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과체중이나 비만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게 여겨지며 신체적 자이는 사람들의 의복스타일 선택과 전반적인 의복에 대한 느낌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신체 자아와 이상적인 신체자아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Kaiser, 1990)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신체적 자아나 신체일부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국내 사회 현상 중 하나는 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외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신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특히 젊고 날씬한 신체를 강조하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받고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보다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스포츠, 미용기기, 에어로빅, 다이어트 치료법, 지방흡입술 등 다양한 방법과 더불어 근년에는 메이크업 기술의 발달과 각종 기능성 의복으로 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체형의 단점을 감추어 주고 장점을 강조해

춤으로써 신체만족을 높이고 있다.

젊은 세대들은 영상세대로 불려질 만큼 시각적인 문화와 친숙하게 성장하였으며 이상적인 체형이나 유행하는 의복 등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박재경, 남윤자 1999). 특히 이상적인 체형으로 키가 크고 사지가 길고 머리가 작으며 날씬한 형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인 체형으로 여겨지는 패션모델과 일반여대생들의 신체 만족도를 비교하였으며 각각의 체형에 대한 인지와 실제 신체충실지수인 Röhler 지수와의 차이를 보았으며 자신들의 옷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체만족도와 관련연구

신체만족도는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해 갖는 만족, 불만족을 의미하며 신체상(body image)의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Horn, 1975). 개인의 신체에 대한 평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람직한 신체형태는 문화적인 기준과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신체적인 이상도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시대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Danielson 1989). 현대의 이상적인 신체상은 점점 더 키가 크고 날씬한 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Labat & Delong, 1990; Lennon, 1997; Douty & Brannon, 1984; Lennon & Rudd, 1994).

이런 이상적인 신체상이 광고매체에 자주 등장하게 되고 청

소년의 경우 광고모델의 신체적 매력을 자신과 비교해서 자기 매력을 향상시키려는 동기를 유발하게 된다(Martin & Kennedy, 1994). 그래서 다이어트 관련산업이 번성하고 있으며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후유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Stephen *et al.*, 1994).

의복은 신체만족을 보상해 줄 수 있고 신체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의복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Sontag & shaiter, 1982). 일반적으로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신체에 대한 자신감으로 의복에 대해 더 많은 욕구를 가지며 특히 노인의 경우 신체적인 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긍정적인 신체적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의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유하고 있는 의복 및 의복생활에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경숙, 1984, 박미애, 1987 Lennon *et al.* 1999).

또한 신체분석과 의복 피트니스에 대한 연구(Karen & Marilyn, 1990)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정삼호, 1996)에 관한 연구 등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평가 또는 신체 만족도 및 의복행동 등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Kerfgen & Touchie-specht(1986)은 개인의 외모와 의복선택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평가란 스스로의 신체분석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인적 의식이며 실제 연구에서 자신의 정확한 신체적 영상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하였으며 외모와 신체능력은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신체상은 비교적 일찍 형성된다고 하였다.

한편 개인에 따라서는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다른 왜곡된 신체상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정확한 신체상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과 눈이 정확한 분석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김양진 등(1992)은 여고생의 신체만족도 연구에서 신체만족도는 다소 낮았고 특히 하체부위에 불만족했으며 신체만족도와 의복만족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같은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의복으로 부정적인 신체자아개념의 극복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김정원 등(1999)은 남녀 대학생의 외모관리후의 신체만족도 차이를 연구하였으며 Clayton *et al.*(1987)은 의복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의복유행지각성이 다름을 밝혔으며 이영주 등(1997), 이영주(1998)은 체형을 고려한 의복디자인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여성의 다른 체형이 선호되고 신체만족도와 의복선호간에 관련이 있으며 의복착용자는 의복을 통해 신체적 외모를 보완하여 자신의 이상형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3.1. 연구문제

- 1) 패션모델과 일반여대생들의 신체만족도 차이를 알아본다.
- 2) 패션모델과 일반여대생들의 신장, 체중, 비만도에 따른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지를 알아 본다.
- 3) 패션모델과 일반여대생들의 신장, 체중, 비만도에 따른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신체만족도에 관한 항목은 피험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느낀 점을 아주 만족하지 않는다(1점)에서 아주 만족한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체의 다섯 부분을 대표하여 17개의 항목이 사용되었다. 신체의 다섯 부분은 하체(다리모양, 허벅지, 종아리), 얼굴(피부색, 얼굴 생김새, 눈, 코, 치아), 길이부분(키, 다리, 발, 크기), 무게(체중, 엉덩이 둘레, 허리둘레) 상체(가슴둘레, 목 사이즈, 몸매)로 이 척도는 Shim 등(1991)의 23개 만족도 항목을 개량한 구양숙·추태귀(1996)의 신체만족도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피험자의 자기신체에 대한 인지도는 날씬하고 키가 크다(1점)에서 부터 뚱뚱하고 키가 작다 (5점)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1점) 보통이다. (2점) 만족하지 않는다. (3점)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하여 이 분야의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거쳐 내용타당성을 확인 받았고 신뢰도 분석 Cronbach Alpha가 0.864로 만족할 만 하였다.

3.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조사는 1999년 7월부터 1999년 12월 사이에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여대생과 Model Line과 Model Center에 소속되어 있는 패션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500부의 설문지 중 378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패션 모델의 경우 신장이 총 113명 중 175~179 cm가 49명(43.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170~174 cm로 38명(33.6%), 180 cm이상도 20명(17.7%)이었다. 여대생의 경우는 총 265명중 160~164 cm가 133명(50.2%), 160 cm이하가 62명(23.4%), 165~169 cm가 50명(18.9%), 170~174 cm가 18명(6.8%)이었다.

체중은 패션 모델의 경우 50~54 kg이 45명(3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5~59 kg로 35명(31%), 60 kg이상 19명(16.8%), 45~49 kg가 14명(12.4%)이었다. 여대생의 경우도 역시 50~54 kg이 108명(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5~49 kg으로 71명(26.8%), 55~59 kg이 43명(16.2%), 45 kg이하가 31명(11.7%)을 차지하였다. Röhler 지수에 의한 체형구분을 보면 Model의 경우 113명 전부가 빈약형으로 분류되었고 여대생의 경우 265명중 빈약형이 150명(56.6%), 표준형이 110명(41.5%), 비만형이 5명(1.9%)이었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패션모델과 여대생들의 신체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키 체중, 비만도에 따른 신체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를 이용하였다.

비만, 표준, 빈약의 객관적 체형분류는 Röhler 지수={체중/

신장³)×10⁵)를 사용하여 계측자료를 Röhrer지수 1.2 미만을 마른 체형, Röhrer 지수 1.2 이상 1.5미만을 표준체형, Röhrer지수 1.5 이상을 뚱뚱한 체형으로 분류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패션 모델과 여대생들의 신체 각 부위의 신체만족도

패션 모델과 여대생의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객관적인 만족

Table 1. Means and t-values for body cathexis

Body item	Fashion Model		Women in College		t-value
	M	SD	M	SD	
Lower Body	8.52	2.78	7.04	2.71	4.80***
Shape of Legs	2.98	1.07	2.40	1.02	4.96***
Thigh	2.52	1.06	2.16	1.05	3.01**
Calf	3.31	1.03	2.48	1.06	4.53***
Head/upper Body	16.05	3.32	14.94	3.35	2.35*
Face Color	3.22	0.93	3.05	1.05	1.54
Facial Complexion	3.31	0.88	2.96	0.88	2.86**
Eyes	3.45	0.94	3.17	1.08	2.35*
Nose	3.15	1.01	2.82	0.97	3.08**
Teeth	3.05	1.07	2.95	1.11	0.86
Height Body	10.13	2.27	8.62	2.49	5.51***
Height	3.41	1.02	2.73	1.15	5.28***
Length of Legs	3.19	1.08	2.57	1.12	4.98***
Feet	3.52	1.07	3.32	0.93	1.84
Weight Body	8.72	2.69	7.63	2.59	3.69***
Weight	2.79	1.09	2.48	1.04	2.68**
Hip	2.81	1.01	2.50	0.99	2.78**
Waist	3.10	1.09	2.65	1.02	3.90***
Torso	9.39	2.17	8.20	2.30	4.71***
Bust	2.96	1.11	2.58	1.03	3.22**
Neck	3.39	0.86	3.12	0.91	2.71**
Body Build	3.03	0.97	2.49	1.01	4.83***

*p<.05, **p<.01, ***p<.001

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체 만족도의 기술 통계치와 신체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패션 모델의 경우 신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불만족한 신체 부위는 허벅지, 체중, 허리, 다리모양 순이었다. 반면에 일반 여대생들은 키보다는 얼굴 부분에 만족도가 높았다. 얼굴색, 치아, 발을 제외한 모든 부위 신체 만족도가 모델과 일반 여대생들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모델이 일반 여대생들보다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의 영향으로 키가 크고 사지가 긴 체형이 이상적인 체형으로 간주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델의 경우 키가 크고 다리가 긴 체형이므로 일반 여대생보다는 그 부위의 신체 만족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신체부위를 5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모델과 일반 여대생을 비교해 보면 모델과 여대생 모두 하체부분과 체중부분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는 Damhorst등(1987)과 김양진(1992), 구양숙, 추태귀(1996)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들의 실제 체중보다 항상 더 많이 인식하고 또 허리둘레, 허벅지, 엉덩이부분도 항상 실측치보다도 더 많이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LaBat & Delong(1990)의 연구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여성들이 하체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의류산업에서 사용하는 치수체계가 상체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Slim hip에 의거한 사이징에 실제치수를 맞추려고 하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했다. 옷이 몸에 맞지 않을 때 여성들은 몸매에 불만을 느낀다. 따라서 여성의 신체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여러 체형의 치수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2. 패션모델과 여대생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지도 차이

신장에 따른 체형의 인지도 차이 : 패션모델과 여대생들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test한 Table 2를 보면 160cm미만의 여대생들은 자기 자신의 키가 작은 것으로 인지했으며 160~164 cm의 여대생들은 자기 자신의 체형을 다

Table 2. Perception of body form according to height difference

		-160 cm (n=62)	160~164 cm (n=134)	165~169 cm (n=55)	170~174 cm (n=56)	175~179 cm (n=50)	180 cm (n=21)
Model	Thin&Tall				18	30	9
	Thin&Short			1		1	2
	Neutral		1	4	16	13	8
	Fat&Tall				2	5	1
	Fat&Short				2		
Women in College	Thin&Tall	17	2	5	9	1	
	Thin&Short		12				
	Neutral	24	93	37	5		1
	Fat&Tall		3	6	4		
	Fat&Short	21	23	2			
χ^2			.429	11.32*	4.91	.625	1.4

*p<.05

Table 3. Perception of body form according to weight difference

		-45 kg (n=31)	45~49 kg (n=85)	50~54 kg (n=153)	55~59 kg (n=78)	60 kg (n=31)
Model	Thin&Tall		7	30	14	6
	Thin&Short		1		1	2
	Neutral		6	11	17	8
	Fat&Tall			2	3	3
	Fat&Short			2		
Women in College	Thin&Tall	1	4	10	2	
	Thin&Short	21	8			
	Neutral	6	54	78	21	1
	Fat&Tall			2	6	5
	Fat&Short	3	5	18	14	6
χ^2			20.79***	56.95***	24.86***	19.35**

*p<.05, **p<.01, ***p<.001

양하게 인지했다. 165~169 cm의 경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 여대생들은 자기 자신이 크다고 평가한 반면 모델들은 키가 작다고 인지하고 있다. 170~174 cm의 경우 패션모델의 경우 자기 자신이 뚱뚱하고 키가 작다고 인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 일반 여대생들은 자기 자신의 키가 크다고 인지하였다. 같은 신장의 경우에도 이렇게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지가 다른 것은 직업에 따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체중에 따른 체형의 인지도 차이 : 체중에 따른 체형의 인지도 차이를 Table 3에서 보면 패션모델의 경우 50 kg의 이상의 경우에는 객관적인 비만지수에는 모두 마른형이지만 자기 체형에 대한 인지에서는 뚱뚱한 것으로 나타나 체중에 따른 체형의 인지는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화보나 매스컴에서 이상적인 체형으로 점점 더 키가 크고 날씬한 형(LaBat & DeLong, 1990; Lenon, 1997)을 모델에게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만도 차이에 따른 자기 체형의 인지도 차이 : 비만도에 따른 체형의 인지도 차이를 Table 4에서 보면 패션모델의 경우

Table 4. Perception of body form according to body type

		Slim Type (n=263)	Standard Type (n=110)	Fat Type (n=5)
Model	Thin&Tall	57(50.5%)		
	Thin&Short	4(3.5%)		
	Neutral	42(37.1%)		
	Fat&Tall	8(7.1%)		
	Fat&Short	2(1.8%)		
Women in College	Thin&Tall	17(6.4%)		
	Thin&Short	27(10.2%)	2(0.1%)	
	Neutral	96(36.2%)	64(24.2%)	
	Fat&Tall	2(0.1%)	11(4.2%)	
	Fat&Short	8(3.0%)	33(12.5%)	5(0.2%)
χ^2		63.06***		

***p<.001

Röhler지수에 따른 체형분류에 의하면 113명 모두 마른형에 속했지만, 자기 자신이 표준이거나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46%나 되었다. 일반 여대생의 경우도 조사대상이 20대의 날씬한 형이 주종을 이루어 비만형에 속하는 대상이 거의 없었다. 마른형에 속한 여대생과 패션모델을 비교해 보면 모델들이 훨씬 더 자기자신을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모델과 여대생 모두 키가 크고 날씬한 형을 이상형으로 추구하지만 직업에 따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4.3. 패션모델과 여대생의 옷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 차이

신장에 따른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 차이 : 신장에 따른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Table 5에 나타나 있는데 모델이나 여대생 모두 신장이 클수록 옷 입은 모습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각 신장에 따른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집단간에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모델의 경우는 신장이 거의 170 cm 이상이고 일반 여대생의 경우 신장이 거의 170 cm 이하이므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델이나 여대생 모두 키가 클 경우에 옷입은 모습에 만족하므로 키가 크게 보이는 옷을 디자인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수 있다.

체중에 따른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 차이 : 모델과 여대생들의 체중에 따라서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나타낸 Table 6을 보면 50~54 kg, 55~59 kg에서 모델과 여대생들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델들은 이 범위의 체중에서 만족한 반면 일반여대생들은 보통이거나 만족하지 않는 차이를 나타낸 것은 모델들의 평균 신장이 여대생들의 평균신장보다 14 cm 크기 때문에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비만도에 따른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 차이 : 비만도에 따른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 차이는 Table 7에 나타나 있는데 모델의 경우 모두 마른형에 속하지만 옷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여대생들 보다 크다. 이런 두 집단의 차이는 모델과

Table 5. Clothing fit satisfaction according to height difference

		-160 cm (n=62)	160~164 cm (n=134)	165~169 cm (n=55)	170~174 cm (n=56)	175~179 cm (n=50)	180 cm (n=21)
Model	Satisfied			1	23	27	12
	Neutral		1	4	15	19	7
	Dissatisfied					3	1
Women in College	Satisfied	16	40	21	8		
	Neutral	36	81	29	9	1	1
	Dissatisfied	10	12		1		
χ^2			.639	.917	2.99	1.53	1.71

p<.01, *p<.001

Table 6. Clothing fit satisfaction according to weight difference

		-45 kg (n=31)	45~49 kg (n=85)	50~54 kg (n=153)	55~59 kg (n=78)	60 kg (n=31)
Model	Satisfied		8	28	18	9
	Neutral		6	16	16	8
	Dissatisfied			1	1	2
Women in College	Satisfied	10	28	34	10	3
	Neutral	15	38	67	31	6
	Dissatisfied	6	5	7	2	3
χ^2			2.11	12.62**	6.66*	2.01

*: p<.05, **p<.01

Table 7. Clothing fit satisfaction according to body type difference

		Slim (n=263)	Standard (n=110)	Fat (n=5)
Model	Satisfied	63		
	Neutral	46		
	Dissatisfied	4		
Women in College	Satisfied	57	28	
	Neutral	83	71	3
	Dissatisfied	10	11	2
χ^2		23.584***		

***p<.001

여대생 모두 마른형이지만 옷 입은 모습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모델의 경우 날씬하면서 키가 큰 데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키가 큰 것이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5. 결 론

1. 패션 모델과 여대생의 신체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델의 경우 모든 부분의 신체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길이에 관련된 신체부분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모델과 여대생 모두 하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2. 패션모델과 여대생의 자기체형에 대한 인지도는 신장과 체

중, 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모델의 경우 170~174 cm의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작다고 인정한 반면, 여대생들은 165~169 cm에서도 자기자신을 크다고 인지하였다. 체중에 있어 모델의 경우 50 kg 이상인 경우 뚱뚱하다고 인지하였다. Röhrer 지수에 의한 분류에는 마른형에 속하지만 모델들이 훨씬 더 자기자신을 뚱뚱하다고 인지하였다.

3. 패션모델과 여대생의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보면 체중과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델, 여대생 모두 키가 크고 날씬할수록 옷 입은 모습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모델과 여대생들은 신체만족도의 기준이 다르지만 두 집단 모두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을 이상형으로 여기므로써 자신의 신체를 불만족스러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참고문헌

- 구양숙·추태귀 (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 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 김양진·강혜원 (1992)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09.
- 김정원·윤종희(1999) 나체상태와 외모관리 후의 신체만족도 차이 -20대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 127-136.
- 박미애 (1987) 노년여성의 신체적 자아 및 생활만족도와 의복태도와

- 의 관계 -서울 시내 노인학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재경·남윤자 (1999) 신체부위별 크기 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8), 1149-1160.
- 유경숙 (1996) 티셔츠색 선호, 외모만족도와 외향성과의 관계-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복식*, **27**, 75-85.
- 이영주 (1998) 슬랙스 제작을 위한 성인 여성의 하반신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분석-30세에서 49세 까지-. *한국의류학회지*, **22**(1), 127-138.
- 이영주·박옥련·이정옥 (1997) 슬랙스 제작을 위한 2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에 대한 인식도 및 체형분석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68-382.
- 정삼호 (1996)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 디자인 선호연구(1)-선의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2), 103-114.
- Clayton R., Lennon S. J., Larkin J. (1987) Perceived fashionability of a garment as inferred from the age and body type of the wearer.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5**(4), 237-246.
- Damhorst M. L., Littrell J. M. Littrell M. A. (1987) Adolescent body satisfaction. *Journal of Psychology*, **121**, 553-562.
- Danielson D. R. (1989) The Changing figure ideal in fashion illustr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1), 35-48.
- Douty H. I., Brannon E. L. (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s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 Horn M. J. (1975)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Houghton Mifflin Co., Boston p.135-200.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 Karen L. L., Marilyn R. D.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Kefgen M., Touchie-Specht P.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th Ed). Macmillan, Nov, p.167-180.
- LaBat K. L., Delong M.R.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2), 195-204.
- Lennon S. J. (1997)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further evidenc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5**(1), 60-64.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Kim J. S. (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Lennon S. J., Rudd, N. A. (1994) Linkages between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body satisfaction, self-esteem,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s in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23**(2), 94-117.
- Martin M. C., Kennedy P. F. (1994) Social comparison and the beauty of advertising models: the role of motives for comparis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1**, 365-371.
- Shim S., Kotsiopoulos A., Knoll D. S. (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35-44.
- Sontag M. S., Shalter J. D. (1982)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2), 1-8.
- Stephen D. L., Hill R. P., Hanson C. (1994) The beauty myth and female consumers: the controversial role of advertising.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8**, 137-153.

(2000년 10월 9일 접수)